

buddhanews.com

# 지옥을 만드는 것도 자기요 극락을 만드는 것도 자기다

## 25면에서 계속

나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탄생을 해 가지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미생물에서부터 말합니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날까지 그렇게 겹겹이 올라오면서 인간까지 성장을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별래의 부모라고 그래서 내 부모 아닌 게 없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 이니까 말입니다.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내 모습이고 네 모습이고 간에 내 부모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님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그 말씀이 부처님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게 아리송하시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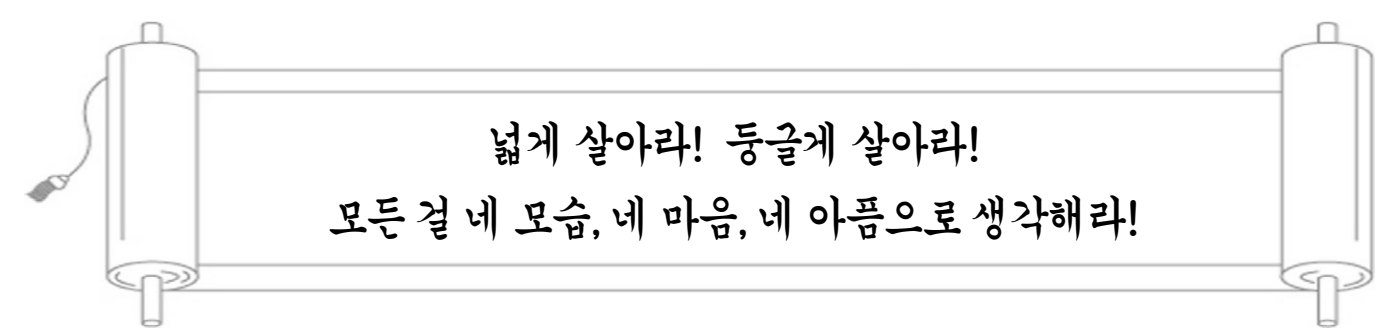
지금 육의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내 영원한 근본은 정자 난자를 빌려서 삼합이 합쳐져야 육을 형성시킵니다. 지금만 육의 부모를 두고 이 세상에 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수억겁을 통해서 아마 생존경쟁을 했을 겁니다.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렇게 실망이를 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그렇게 가깝게 두고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 주인의, 즉 말하자면 종입니다. 종, 종 문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종입니다. 주인과 종이 틀어지게 상봉을 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공부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인을 이롭게 해서 부(父)라고 하고 자기는 자(子)라고 합니다. 자와 부 상봉을 해야만이 그래서부터 무의 세계로, 유의 세계로 뛰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 화두를 마음이 준 겁니다. 화두라는 이름을 준 거는 아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화두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이름이 없으면 줘야 안 줘야 할 수가 없으니까 화두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어느 스님네고 마음을 주었지 화두라는 이름을 준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일 때, 자기 영원한 근본이 물 한 방울이라고 치면 그 영원한 근본을 물 아나게 수만 개를 넣는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영이죠. 그러니 그대로 한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한마음 가운데에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놓는 것입니다. '내가 들이는 것이 바로 너니까 내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자꾸 놓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을 움켜쥐게 하는 것도 너, 잘 되고 못되게 하는 것도 너, 잡자고 깨어나게 하는 것도 너, 일체가 다 너죠, 너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부(父)라고 해도 좋고, 자기가 친근하게 닿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방편을 대도 좋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보살들을 자기가 생산시켰습니다. 한마음으로서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을 전부 보

살로 화하게 해서 텅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게 만들고, 낮고 높고 떠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말고 모두 응신이 돼 줘라 하는 뜻에서 천백 억화신이 그 모든 중생들에게 응신으로 나타나 주신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가 없고 현재에 모두 주둔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성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적으나 많으나 하는 차이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지나갔으니가 없고, 내가 태어났으니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처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인과응보도 내가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두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스스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그 다섯 가지가 있다면 오신통이라는 다섯 가지가 또 있죠. 그 육통을, 육신통이라는 이 통 속에서 벗어나야만이 누진으로써 자유스럽게 들고 낸다 이런 말이죠.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하하하...



그래서 보는 거 천안통, 듣는 거 천이통, 또는 신족통 타심통 속명통이라는 다섯 가지의 오신통 자체 속에 유전성 영계성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그 모든 것이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그 자체는 뭐냐? 우리가 지금 시냇물로 따지자면 오신통을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컴퓨터라고 한다면 그 다섯 가지 문제를 들고 다섯 가지 문제에서 풀려서 현실로 나가고 또 돌고 하는데, 내고 들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또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참 묘하게 생겼어요. 입력이 되는 대로 자꾸 그게 누적이 되니까 누적되게 하지 마시고 그 나오는 자리에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 놀이라고 하면 어떻게 부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한 놈 속에서 서 있기라도 하고 내기도 하는 걸요. 그러니 그 구멍이 아니라면, 구멍 없는 구멍이 아니라면 절대 무의 세계에는 궁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 들어서야만이 현실의 모든 법을 감지하면서 무의 세계에서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가 나지 않게 둥글리면서 진짜 공부하는 그때서부터 하는데 그것이 점수입니다.

점수라고 일컬어 말하는 거죠. 돈오와 점수가 어떻게 돌이겠느냐. 돈오는 어린애를 금방 낳은 거와 같고, 점수는 어린애를 키우는 거와 같다 이런 겁니다. 키우는 거하고 낳는 거하고 뭐이 다른 거냐? 선과 학도 물이 아니요 생활과 부처님 법도 물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법이자 우리의 재료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재료!

법당에 들어가서도 삼정례를 한다. 칠정례를 한다. 팔정례를 한다. 또 백팔 배를 한다. 삼천 배를 한다 이러는데, 옛날에 제가 걸음을 걸을 때에 한 걸음을 걸은 거와 삼천 걸음을 걸은 거와 맞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길이 산길이 아니고 들길이 들길이 아니고 그대로 한생각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면서 살고 계신데 그걸 납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진짜로 믿고, 자기 공짜로 자기 공짜를 진짜로 믿고 '하! 영원한 친구구나. 네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쓰겠니? 네 집인데 주인이 고쳐야지 누가 고치겠니? 사사 집도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고치게 마련인데 아, 네 집을 형성시

하고 마음이라는 이 이름이 이 세상을 다 삼키고도 남고, 그 마음이 이 세상을 다 끌어당길 수도 있고 집어삼킬 수도 있고 뱉어 놓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권도라고 할까요? 권도! 자유 권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라서 잘못된 사람을 잘못했다고 때려 주면 안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 한자리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그 부처님 법을 그대로 알게 될 겁니다. '넓게 살아라. 둥글게 살아라. 낮은 걸 보고도 낮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모든 걸 네 모습으로 보고 네 마음으로 보고 네 아픔으로 보고 네 몸으로 생각해라. 수억겁을 거치면서 부모가 안 됐던 게 없고 자식이 안 됐던 게 없고 형제가 아니 됐던 게 없으니 부족하더라도 모두 옛날 네 모습으로 봐라. 모든 것이 평등하니라.' 하신 뜻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삽니다.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미래를 가져오고 과거도 현실로 끌어올 수 있고 미래도 끌어다가 바로 현실로 놓을 수 있는 그

기름, 때로는 비구가 됐다 때로는 비구니가 됐다, 때로는 작부가 됐다 때로는 짐승이 됐다 때로는 미생물이 됐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바뀌고 나뉘고도 하셨는데 어떤 거를 할 때 비구니라고 하고 어떤 거를 할 때 비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룩하고 한국 불교를 리드해 나가려고 한다면... 지금 청소년들이나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이 구렁덩덩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 발전은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얼마나 집을 뛰어다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가대학을 좀더 마음으로도 뒷받침을 해서 거기서 금같이 굳고 대쪽같이 바로고, 넓기로 말하면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스님네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마음으로 항상 염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서 노는 고기들은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공기주머니에서 나오면 죽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급히 생각하고 "너희들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야 자유스러우니라." 하셨습니다. 너무나 가급해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게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죽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몸이 쓰러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먹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주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받는다는 생각도 없이, 오직 건질 생각만 하고 그렇게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건데, 우리가 절단은 넘어설 수 없을지 언정 그 말씀만은 실천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 공기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육신통, 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지구 속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심안으로 보지만 해도 도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예요. 보는 것도 도가 아니고 타심통, 남의 마음을 다 잘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구름을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자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듣는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그 다섯 가지 통 속에서 벗어나서 대뇌에서 자유자재권을 얻어야 되느니라. 대뇌라는 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모든 일체 해어릴 수 없는 중생들과 가설이 돼 있습니다. 참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5년 10월 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 강좌

###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09. 9. 26(토) 오후 1시부터 ~ 9. 27(일) 오후 6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스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단돈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앰프 마이크 소리를 “확” 바꿔드립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앰프+마이크,스피커+마이크 등의 교체 및 재 셋팅]



- ◇ 소리공방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예약접수기간 : 2009년 6월 ~ 8월 31일까지  
(예약순으로 일주일씩 법당 2곳만 설치해 드립니다)

해 당 지 역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일부 지역



▶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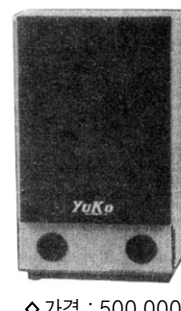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출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탠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